

7.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

정 책 방 향

- ◇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구조개편 지속 추진
- ◇ 석유유통구조개선, 석탄산업합리화 등 에너지산업 경쟁기반 강화
- ◇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설비 및 전력기자재 등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

가.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추진

□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지속 추진

-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은 최종입찰 단계에서 투자자들의 내부사정 등에 따른 입찰 불참의사 제출로 중단('03. 3)
- 향후 발전회사의 민영화 여건 조성에 주력
 - 남동발전(주)는 경영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수 지분의 증시상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
- 경영권 매각은 투자심리 회복 등 국내외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남동발전부터 재추진
- 배전/판매부문은 한전 내부사업단 체제로 개편하여 모의 운영을 실시한 후 분할 추진
 - 분할시기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조정

□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추진시기와 방법 등 보완

- 설비부문은 공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정부가 대주주인 현행체제를 유지하되, 공동이용제 실시방안 마련
- 도입도매부문은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종합 검토 후,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

□ 지역난방공사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

- 주민 협의체를 대상으로 민영화의 필요성을 지속 설득
- 법적 소송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 지분인수 방식 등 종합 검토

나. 에너지산업의 경쟁기반 강화

□ 석유산업의 고도화 및 유통구조 합리화

- 석유정제시설 고도화 및 환경관련시설 투자확대로 석유산업의 지속 성장기반 강화
-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검토, 전자상거래 확산 등 종합적인 『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』 수립·추진
- 세제(관세)개편, 업무영역 조정 등을 통해 정유사·수입사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,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엄정 대처

□ 전력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

- 전력 R&D, 전력기술인 양성 등 전력인프라 지속 확충
- 전력기술로드맵을 작성, 핵심 기술을 순차적으로 개발

□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의 지속 추진

- 10개 탄광중 2~3개 탄광의 자율적인 폐광이 예상됨에 따라 2005년부터 300만톤 내외에서 수급균형을 유지토록 추진
- 폐광 및 감산 지원제도를 활용, 지속적인 폐광지역 활성화로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 해소

□ 에너지요금제도의 지속적 개선

- 전기요금은 현행 용도별 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원가에 기초한 요금체제로 개편
-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보급 촉진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체계 개선 추진

다. 에너지 산업의 수출산업화

□ 전력기자재 ·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촉진

- 전력선 통신, 한국형 배전 자동화 시스템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수출산업화
- 전력산업의 중동, 중국, 동남아 등 개도국 진출 지원

□ 원전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

- 원전 설계, 기기, 운영 등 핵심 기술개발을 강화하고, 원전 산업의 해외진출(베트남, 루마니아 등)을 위한 기반 조성
- APEC 회원국 대상으로 『원자력발전 기술인력 훈련프로그램』을 설치·운영하여 한국형 원전 홍보 및 수출기회로 활용